

# 막오른 세계 '스포츠 대선'... IOC 위원장 7파전

바흐 이을 위원장 11년 만에 선거 개최지 결정·TV 중계권 계약 등 중책 서배스천 코·커스티 코번트리 '주목' 사마란치 아들·아시아 출신 등 출마

'스포츠 대권'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곧 교체된다.

IOC는 오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리스에서 제144차 총회를 열어 토마스 바흐(71) 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IOC 위원장을 선출한다. 오는 6월 퇴임하는 바흐 위원장이 당선됐던 2013년 9월 이후 11년 6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IOC 위원장 선거다.

이번 선거에는 무려 7명의 후보가 경쟁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서배스천

코(68·영국) 세계육상연맹 회장과 유일한 여성 후보인 커스티 코번트리(42·짐바브웨) IOC 집행위원이 출마했다.

또 21년간 IOC를 이끌었던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위원장의 아들인 사마란치 주니어(65·스페인) IOC 부위원장과 IOC 위원으로 활동 중인 다비드 라파르티앙(52·프랑스) 국제사이클연맹 회장, 요한 엘리아쉬(63·스웨덴) 국제스키스노보드 연맹 회장, 파이잘 알 후세인(61) 요르단 왕자, 와타나베 모리나리(66·일본) 국제레조연맹 회장도 출사표를 올렸다.

새 IOC 위원장은 2033년까지 8년 임기를 수행하며, 한 차례만 4년 중임할 수 있다.

차기 위원장 후보들의 첫 관문은 오는 30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는 제143차 총회에서의 후보자 정견 발표다. 정견 발표는 온라인으로 중계될 예정으로, 후보들은 이

미 각자 공약을 공개했다.

발표 순서는 추첨을 거쳐 알 후세인, 라파르티앙, 엘리아쉬, 사마란치 주니어, 코번트리, 코, 와타나베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차기 위원장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코 후보는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남자 1500m를 석권한 육상 스타 출신이다. 코 후보는 2012 런던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앞장서는 등 스포츠 행정가로서 검증받았다. 하지만 코 후보는 현재 68세로 IOC 위원 정년(70세)에 불과 2년을 남겼다. 정년 특례 규정에 따라 IOC 위원 임기를 4년 연장하더라도 현재 IOC 위원장 임기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위원장 재임 6년째인 74세에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바흐 위원장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

려진 코번트리 후보는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 올림픽 수영 여자 배영 200m 금메달리스트로서 유일한 여성 후보로 시선을 끈다. 라파르티앙 후보는 바흐 위원장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마란치 주니어 후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자 위원장에 도전한다. 이밖에 와타나베 후보와 후세인 후보는 아시아와 중동 출신 첫 위원장에 도전장을 냈고, 스키와 테니스용품을 만드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헤드의 대표로 갑부인 엘리아쉬 후보는 작년 7월 총회에서 신규 위원으로 선출된 지 두 달 만에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

4번의 동·하계 올림픽을 관장하고 2036 하계 올림픽 개최지 결정, IOC 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TV 중계권 계약 등 중책을 앞둔 새 위원장에 누가 당선될지 주목된다.

연남스



폴란드의 시비옹테크가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2회전에서 슬로바키아의 스크코바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연남스

## 시비옹테크, 도핑 징계 딛고 호주오픈 활약

여자 단식 2회전 스크코바에 2-0 승 징계 이후 첫 메이저 대회...우승 도전

지난해 도핑 징계를 받은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9650만 호주달러·약 875억 원) 3회전으로 순항했다.

시비옹테크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닷새째 여자 단식 2회전에서 레베카 스크코바(49위·슬로바키아)를 2-0(6-1 6-2)으로 완파했다.

시비옹테크는 호주오픈 첫 우승에 도전한다. 시비옹테크는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5차례나 우승했으나 호주오픈과는 우승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22년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오른 게 최고 성적이다.

이번 호주오픈은 도핑 징계 뒤 처음으로

출전한 메이저 대회여서 우승 동기는 더 크다. 시비옹테크는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트라이메타지딘(TMZ)이 검출돼 지난해 11월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1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시비옹테크의 다음 상대는 어맨다 아니시모바(35위·미국)를 물리치고 올라온 에마 라두카누(61위·영국)다.

라두카누는 2021년 US오픈에서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예선부터 시작해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르며 '신데렐라'로 떠올랐으나 이후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다. 시비옹테크는 라두카누를 상대로 3전 전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2023년 윌블던 준우승자인 온스 자베르(39위·튀니지)는 카밀라 오소리오(59위·콜롬비아)를 2-0(7-5 6-3)으로 물리치고 3회전에 올랐다.

연남스

국순당 곶창명주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님, 고마우신 분들께 명작 복분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우리명절 설날 명작 복분자와 함께!!!

우리술의 자부심을 이어가기 위해, 100% 국내산 1등급 복분자로만 채웠습니다.

국순당 군남

· 샌프란시스코 와인대회 - 대상 수상  
· Korean Wine Awards - Gold 수상  
· 한국와인품평회 - 금상 수상

국순당 명작 복분자 SET  
군면세가 16,520원  
375ml x 4병 / 알콜도수: 13% (저도주)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곶창명주 | 주

구입문의 063-564-9800  
국군복지단 마트에서 판매중

\* 광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